



NH농협금융, 임직원 봉사단 화훼농가 일손 도와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일 김광수 회장 등 임직원 봉사단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김포 소재 화훼 농가를 방문해 수확철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NH농협금융 임직원 봉사단은 화훼 상토 작업과 화분갈이, 환경정리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농업인들의 고충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오른쪽 세번째)과 김인태 부사장(첫번째) 등 임직원 봉사단들이 화분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



한세실업, 베트남 초등학교 400곳에 4만권 책 기증
한세실업이 베트남 초등학교 400여 곳에 기증한 책이 4만권을 기록했다. 한세실업은 베트남 법인을 통해 '1만권의 책-수백만의 사랑' 도서 기부 행사를 성황리에 끝냈다고 21일 밝혔다. 베트남 호치민시 판반찌 초등학교에서 지난 13일(현지 시간) 열린 도서 기증 행사에서 문양원 한세실업 아시아 총괄 법인장(왼쪽)이 응웬 티 흥 엔 학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세실업



금호타이어, 슈퍼레이스 GT클래스 네이밍 스폰서십 체결
금호타이어가 20일(슈퍼레이스)와 2020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GT클래스의 네이밍 스폰서십을 체결했다. 이에 2020 시즌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GT 클래스는 '금호 GT' 클래스로 변경되어 레이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상엽 금호타이어 부사장(왼쪽 세번째)과 김동민 슈퍼레이스 대표(왼쪽 두번째)가 후원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유신재 박사, 국제해양연구회 의장 선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는 '2020년 국제해양연구위원회(SCOR) 연차총회'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유신재 박사(사진)가 의장으로 최종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신임 의장 임기는 2020년 10월~2024년 10월까지 4년이다. 위원회는 해양학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1957년 설립된 대표적인 국제 해양 학술기구다. '국제 인도양



탐사'와 같은 전지구적 규모의 해양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해 세계 해양학 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 31개 회원국이 속해 있고, 설립 이래 아시아권에서 의장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홍수기자 hys@



전자랜드, 미혼모지원센터에 가전 청소 서비스
전자랜드는 오는 23일까지 서대문구세군 두리홈 미혼모 지원센터에 가전 청소 서비스 '전자랜드 클리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랜드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지원을 통해 총 59대의 센터 내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클리닝 서비스를 진행하며, 지원 규모는 약 570만원 수준이다. 전자랜드는 이번 서대문구세군 두리홈 지원을 시작으로 미혼모 센터 지원을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랜드

국감에 왜? 방산결함 참다 병나는 꼴



문명철 기자의
국방 칼럼

매년 돌아오는 풍경이지만, 국정감사만 되면 군 당국이 명품이라고 자랑해오던 무기체계나,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들의 결함이 드러난다. 우리 군의 군납체계가 후진적이다 보니 참아왔던 똥이 터져나오듯 터져나오는 것이다. 올해는 육군이 견지 않는 보병을 만들겠다고 군이 도입한 소형전술차량과 차량형 장갑차의 심대한 결함이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목소리 높여 자랑하던 군사위성에는 리모콘에 해당되는 통제 장치가 빠져 있다는 어마무시한 내용도 튀어나왔다. '더 싸고 더 빠르게 더 좋게'라는 미션불가능의 경전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군납 결함'이라는 똥을 번비가 올때까지 참는 기행이 더해진다. 업체들 간 무한경쟁을 붙여 놓으면, 군 당국이 제시한 요건이 무리한 것이라도 업체 끼리 스스로 살을 깎는 충성심을 보여줄 것이라던 걸 군당국은 잘 알고 있다. 해외 방산 또는 군납업체들이 정부의 낮은 규제에서 업체가 주도가

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가며 발전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좁은 반도국가에서 기대하기 힘들다.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만들면 사줄테니 우리의 손에서 놀아라는 얇은 생각뿐이고, 업체들도 그 손을 벗어나는 도전을 하기가 무섭다.방산과 군납이 국방과 경제를 잡는 두 마리 토끼라고 하는데 이도 사실 들여다 보면 꼭 맞는 이야기도 아니다. 방산장비와 군납물자의 목적은 전쟁과 전쟁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통한 승리확보다. 그런데 여기에 취업창출 수출확대까지 더해지면 '짬짜면'이 될 수 있다. 짬짜면은 맛이라도 있지만, 군납의 짬짜면은 어느 쪽도 아닌 기형적 맛이 돼 버린다. 방산기업은 원가를 보전받고 군납을 통해 최소한 기업유지가 되지만, 국방규격 등 우리 군의 요구사항을 벗어나 국제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기 힘들다. 게다가 시장도 좁아터진데 일감이 줄어도 고용인원을 함부러 감원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의 압박은 무한반복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살기위한 난투극이 벌어진다. 남의 것을 배겨오는 건 필수과목이다. 그나마 대기업 중심의 방산업체들은 이런 문제에서 헤어나왔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군납업체는 진흙탕 이종

격투기장이다. 더욱이 이번 정부들어 가격을 낮추면서도 중소기업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펴면서, 진흙탕은 늪지의 서식처로 바꿨다. 제조업체가 아닌 일명 브로커를 낀 비전문 유통업체들의 군납 침투는 극에 달하게 됐다. 중국산 응급처치킷, 중국산 하이컷 헬멧, 뜯어지는 방탄복, 상표까지 배껴낸 가짜 특수작전용 칼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납품 업체들은 제조업체가 아닌 미용업, 통신평판매업 등의 업체들인데, 조달시스템상 군수품무역업체 등록만 하면 군에 납품을 하고 먹튀를 할 수 있다. 군인들은 대려 이들을 옹호해 준다. 물론 옹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쓰린 속사정도 잘 안다. 자신의 보직 기간 동안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는 과중감, 보직관리와 진급의 문제, 이로 인한 전문성 배양 기간의 부족 등 밖으로 말하지 못할 속사정도 넘쳐난다. 해결책은 국가계약법과 조달청 중심의 국가조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군납업체의 목을 죄는 '군복 및 군장류 단속법', 비상장장비인 광학장비 업체를 누르는 '총포 및 도검 관련법' 등의 규제를 혁파해야 제대로 된 국내기업 육성과 군납의 품질개선이 가능하다. /captinn@metroseoul.co.kr

신한은행, 올스타 팬투표 적립금 기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전달
코로나19 피해 이웃 돕기 활용

신한은행은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회관빌딩에서 신한은행 박우혁 부행장과 KBO 류대환 사무총장, 대한적십자사 백옥숙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신한은행 쏘(SOL) KBO 올스타 투표 기간 적립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KBO 리그 올스타전은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리그 최대의 축제이다. 개막 원년인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개최됐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리그 개막이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7월 25일로 예정됐던 올스타전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 신한은행과 KBO는 아쉬움을 달래고 무관중 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회관빌딩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쏘(SOL) KBO 올스타 투표 누적 기부금 전달식에서 신한은행 박우혁 부행장(왼쪽에서 네번째)과 KBO 류대환 사무총장(왼쪽에서 두번째), 대한적십자사 백옥숙 본부장(왼쪽에서 세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도 KBO리그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팬들을 위해 지난 8월부터 한달간 올스타 투표 및 언택트 올스타 레이스를 진행했다. 올스타 투표 참여수에 연동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신한은행 박 부행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 KBO 타이틀 스폰서로서 야구팬들께 재미를 선사함과 동시에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인사

- ◆ 국토교통부 ◇ 부이사관 승진 △ 토지정책과장 정우진 △ 시설안전과장 김태곤 △ 항공정책과장 이정희 △ 도로정책과장 이상현 ◇ 과장급 전보 △ 기업성장지원팀장 정수호 △ 도시경제과장 윤의식

부음

- ▲ 함봉근 씨 별세, 이용익·이용진(화창기공 대표이사)·이용주(재미동포)·이해라 씨 모친상,

- 승은호(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회장)씨 장모상 = 20일 오후 6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02-3410-6915.
- ▲ 김형철(한국내소날 회장)씨 별세, 김한빛(한국내소날 대표이사)씨 부친상 = 20일 오후 3시 22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23일 오전 7시, 02-3010-2000.
- ▲ 이선우씨 별세, 이영형·이신형씨 부친상, 권희진(일간투데이 기자)씨 시부상 = 21일 오전, 광명여지원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10시, 02-2060-4444.
- ▲ 홍춘자씨 별세, 이지연(한국방송광고진흥

- 공사 진흥사업전략팀장)씨 모친상, 한상욱(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교육팀장)씨 빙모상 =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3일,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2258-5922.
- ▲ 김형임 씨 별세, 조점근(동원시스템 사장)·영부(동원푸드 상무이사)씨 모친상 = 20일 오후 5시43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2일.
- ▲ 김길남 씨 별세, 이경수(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씨 모친상 = 21일 오전,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23일, 062-521-4444.